

(축산전문기자가 바라보는 올해 오리산업 동향 및 발전방향)



이희영
축산신문
차장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

어려움 극복하면 다시 한 번
기회 찾아올 것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오리업계는 높은 산을 오

르기만 했다. 물론 중간에 작은 계곡이나 능선도
있었지만 대세 상승기나 마찬가지로였다.

생산만 하면 무조건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오리
산업 최고의 호황기를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오리업계는 지난 2010년 말 발생한 AI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몇 년 사이 오르는데 익숙했던
오리업계는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무분
별한 F1입식 등으로 인해 자충수를 두는 악수를
봤다.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오리 산업이 워낙
고성장을 거듭하다보니 기존의 오리업체들은 물
론 외부에서도 속속 오리업계 진출하면서 불황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로 내리막길이 있으
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나오기 마련이다. 오리업
계도 최근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오리 산업이 다시 한 번 비상 of 날개를 펴고 날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오리 산업 동향

2010년 말 발생한 AI는 과거 발생했던 AI와 달리
오리 생산기반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줬다.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던 종오리가 무더기로 매몰
처분 조치되면서 새끼 오리 생산기반이 급격히 무
너졌다. 이로 인해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AI여파는
단 한 달 밖에 미치지 못했다. F1오리의 무분별한
입식 때문이었다.

종오리 매몰처분으로 인해 5월까지 물량 부족 현
상을 겪으면서 산지 오리가격은 1만원대를 넘어
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AI의 영향은 여기까지 였다. F1오리에서
생산된 오리들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오리가격은 곧두박질치고 말았다.

이처럼 F1오리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오리업
계 내부적으로 F1오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
을 내놓고 있지만 F1오리의 근절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 한탕을
노린 업자들로 인해 F1오리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항상 오리 산업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무분별한 F1오리입식과 함께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최근 오리업계는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2011년 12월 오리 도압 마리수는 85백만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오리고기 소비는 10월 이후부터 비수기로 접어들어 평년에는 사육마리수는 물론 도압수수도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전년 대비 약 114% 정도 증가했다. 더욱이 사육마리수 증가와 함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도 오리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리업체들은 현재 수십만수에서 수백만수에 이르는 재고를 안고 있어 전체 재고물량은 12월까지 약 1천200만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육마리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났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오리고기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재고 증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식당이나 TV홈쇼핑 등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오리업계의 분석이다.

■ 오리 산업 전망

- 정체된 소비 늘리기 위한 신 성장 동력 발굴 절실
오리생산량은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매년 12~47%까지 고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06년 3천만수에 불과했던 것이 5년 만에 2.5배가 늘어났다.

이처럼 오리 산업이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웰빙 소비의 영향을 받아 오리고기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FMD의 여파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수요로 인해 오리고기가 늘어난 것도 생산량이 늘어나데 한 몫 했다.

(연도별 오리도축량)

년도	도축마리수	전년대비
2005년	20717	-
2006년	30560	147%
2007년	42187	138%
2008년	48414	114%
2009년	54471	112%
2010년	74834	137%
2011년 11월	76920	-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늘어나기만 했던 소비량이 정체를 보이며 재고물량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생산된 오리고기 중 2010년보다 늘어난 물량은 업체들이 재고로 떠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연말 재고량은 1천200만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늘어난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때문에 금년도 오리 산업은 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늘어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리고기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업계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F1오리 근절부터 시작해야

오리업계가 최근 당면한 불황은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F1오리 입식에서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오리업계는 무조건 생산만 하면 돈이 됐다. 하지만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리업체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오리업체에서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생산성이 좋지 않은 농가들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PS종오리와 F1종오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F1오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F1오리는 시장 상황이 호전될 경우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F1오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F1오리는 항상 오리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그 동안 오리업계는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해 왔다. 이로 인해 오리농가들은 아직도 낙후된 축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우, 돼지 등에 밀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도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리 산업이 근본적으로 강한 오리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기반이 견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생산시설만으로는 강한 오리 산업이 되기는 힘들다. 때문에 오리계열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농가들과 동반 성장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 오리 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원종오리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높여야
2012년은 오리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바로 오리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원종오리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기 때문이다.

그 동안 원종오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리업계 내부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원종오리에서 본격적인 PS오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수입에 의존하던 PS오리가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만큼 가격 경쟁력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종오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리업계가 지불한 수업료는 만만치 않았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원종오리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오리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기대한다. 오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고도성장 후에는 반드시 구조조정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금년 한 해는 오리업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오리 산업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때문에 나 하나가 아니라 오리업계 전체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오리 산업은 또 한번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쿠나 마타타 플레 플레



김동호
농수축산
기자

오리산업은 지난 수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산업의 규모를 키워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2007년 약 4800만 마리였던 도압실적은 2011년 11월까지 약 77백만마리로 크게 늘었고 산란율과 부화율이 높아지

는 동시에 사료요구율이 낮아지며 생산분야의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이에 힘입어 2010년 오리산업의 총생산액은 1조3059억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소비측면에서는 웰빙붐과 궤를 같이 하며 오리고기의 소비량 또한 급격히 성장했는데 2001년 1020g을 기록했던 국민1인당 오리고기